'길 위에서' 섹션 (1층) 전체 전경(정면 박우인 작 '길 위에서')

'오늘도 비가' 섹션(지하층) 유지원 작품 전시 전경

퇴락해가는 도심 화가들 예술로 활기 불어넣다

예술공간 집,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 '아침놀'전
9월 15일까지 김냇과서 세 섹션 구성·15명 65점
동구 활성화·공간 상생…아트생태계 활기 기대도

퇴락해가는 원도심 활성화와 비어있는 공간의 상생을 꾀하면서 아트생태계의 생기를 호출할 전시가 마련된다.

광주 예술공간 집(대표 문희영)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후원하는 '2025년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 선정으로 진행되는 전시가 그것으로, 광주 동구권 활성화 및 지역 내 공간 상생은 물론, 동구지역에 예술의 활기를 한껏 불어넣기 위해 열린다.

전시는 지난 1일 개막, 오는 9월 15일까지 '아침놀'이라는 주제로 광주 동구에서 9년째 갤러리를 운영해 오고 있는 예술공간 집이 동구 예술의 거리와 인접한 '김냇과' 공간에서 진행한다. 기획은 양초롱 독립기획자가 맡았다. 광주시 동구 협력으로 참여작가 총 15명의 회화와 입체, 미디어,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65점이 출품되는 민간 최대 규모 전시다.

김냇과에서의 전시와 미로센터에서 진행되는 전시연계프로그램, 세미나 등이 펼쳐진다.

타이틀 '아침놀'은 순우리말로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하늘이 햇빛을 받아 벌겋게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 여러 작품 속에서 삶의 의미와 희망,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진단하며, 오늘날 삶의 의미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깊은 성찰의 계기를 던져 주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참여작가로는 권세진 김영진 김자이 박우인 박정용 박치호 신호윤 유지원 이연숙 이인성 이지웅 임용현 정승원 하루.K 하승완씨 등으로 2000년생 청년 작가부터 중견 작가까지 다채로운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김냇과 전층을 3개의 섹션으로 구성했다. 각 층별로 구분된 섹션명 '길 위에서'(1층)와 '오늘도 비가'(지하), '그럼에도'(2층)는 '삶의 끝과 시작', '기억', '한낮의 열기(꿈)', '생의 한 가운데', '삶의 부조리' 등을 표현하는 여러 상황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길 위에서' 섹션은 전시장의 입구 김영진 작가의 작품을 시작으로 정승원 이지웅 박우인 김자이 임용현 작가의 작품이 선보이며, '오늘도 비가' 섹션은 지하로 박치호 유지원 박정용 이연숙 권세진 김영진 하승완 작가의 작품이 출품된다. '그럼에도' 섹션은 이인성 하루.K 박치호 신호윤 임용현 작가의 작품이 관람객들을 만난다.

참여작가들은 대부분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신작을 제작해 참여했다고 한다. 지역과 예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해온 예술가들의 관심과 노력이 한껏 반영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다채로운 장르의 작품들과 더불어 관객 참여형 작품은 관람객들에게 전시 몰입도를 한껏 높여주고 있다.

1층에 위치한 김자이 작가의 작품과 지하에 있는 이연숙 작가의 작품은 관람객들의 창작적 행위를 더해 전시를 더 깊이 즐길 수 있게 해준다. 20대부터 50대까지 세대를 가로지르는 15명 작가들이 보여주는 인간 삶에 대한 각자의 시선은 희망과 절망 사이 삶의 다층적 양상을 각자의 시선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게 해준다. 비극적면서도 희극적이며, 지독히 외로운 가운데 있지만 행복하며, 고통스럽지만 유머 있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시 기간 중에는 매주 수, 목, 금, 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시도슨트가 운영되며, 전시연계프로그램으로 참여작가인 김영진 김자이 정승원 작가가 진행하는 주민참여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또 전시 막바지인 9월 13일에는 세미나 '부조리, 삶과 맞닿아 있는 예술'이 열린다. 세미나는 한종신 예술감독과 윤규홍 평론가, 이문정 평론가, 김희정 영화감독(조선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들은 이주, 이방인, 그리고 원치 않는 재해 이후에 살아 나가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로 전시의 주제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보인다.

하루. K 작 '맛있는 공격!'

광주에서 단독 기획전 데뷔를 하게 된 양초롱 기획자는 "참여작가들을 20~50대 작가가 참여하고 있고, 매체 또한 다양화하는데 신경을 썼다. 박우인 작가 작품처럼 전시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려고 했다. 공간 자체를 길처럼 꾸몄다. 주제 '아침놀' 역시 은유적으로 세계에 대해 유기적 연결을 꾀했다"고 밝혔고, 예술공간 집 문희영 대표는 "지역 민간 갤러리와 지역 독립기획자, 지역을 연고로 활동하는 작가들이 한데 뭉쳤다. 같은 지역전시활성화 사업으로 마련된 동곡미술관의 우수 추상미술 컬렉션전(영은미술관 2021년 전시)과는 유형이 조금 다른 것으로, 인구 감소 지역의 미술생태계에 활발한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박영희 작 '여기가 제일좋아'

특별한 휴식과 재충전 '아트바캉스' 선사

나빌레라문화센터 하반기 기획전
'여름 속 오아시스'展 31일까지

나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나빌레라문화센터는 하반기 기획전시 '여름 속 오아시스'를 지난 7월 29일 개막, 오는 31일까지 갖는다.

이번 전시는 지친 일상 속에서 예술이 제공하는 특별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생각하게 하면서 시원한 감각과 차분한 분위기의 작품들이 어우러져 한여름 아트바캉스를 선사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나빌레라문화센터에서 예정된 세 차례의 기획 전시 중 첫 번째 전시로 열리는 이번 '여름 속 오아시스'전에는 박영희 양세미 이유빈 엄기준 등 총 4명의 작가가 참여해 평면 회화 작품과 설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각기 다른 시선과 감각으로 구현된 '쉼'의 풍경은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예술적 해석과 감정적 울림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전시와 함께 8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전시 관람객을 대상으로 '바캉스 팔찌 만들기' 무료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해당 체험은 선착순 30명에 한해 현장에서 참여 가능하며, 전시의 주제와 어우러지는 감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할 전망이다.

나빌레라문화센터는 시민들과 예술이 가까워지는 문턱 낮은 공간으로,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복합문화 거점 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나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나빌레라문화센터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의 문화 거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시는 이런 취지에 맞춰 기획된 하반기 첫 번째 전시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청소년 위한 동·서양철학사' 개정판 동시에 출간

강성률 명예교수, 기본 지식 전파

198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32년 6개월 동안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친 바 있는 강성률 명예교수(광주교대)가 '청소년을 위한 동양철학사'와 '청소년을 위한 서양철학사' 개정판(평단문화사 刊)을 동시에 출간했다.

먼저 '청소년을 위한 동양철학사'는 풍부한 주석과 다양한 그림 속에 동양 철학의 모든 것을 한 권에 담았다. 저자는 이 청소년 동양철학서에서 중국철학과 인도철학, 한국철학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중국 철학은 상고 시대의 신화에서부터 공자·맹자·순자의 유학, 노자·장자의 도가, 묵가·명가·법가·중국 불교·성리학·심학·양명학에 이르고, 인도 철학은 봉헌 신비주의·우파니샤드·자이나교에서부터 불교 철학·힌두교·유물론에 이르며, 한국 철학은 단군 신화에서부터 삼국시대·고려·조선·일제강점기·현대 철학에 이른다.

이어 '청소년을 위한 서양철학사'는 서양철학사 2500년의 이야기를 시기에 따라 전개,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 철학 전체의 흐름을 한번에 꿰뚫을 수 있으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철학가들의 에피소드 및 사생활까지 다루어 읽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

이 청소년 서양철학서에서 저자에 따르면 고대 철학은 자연철학자들·소크라테스·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금욕주의·스토아학파를 다루고, 중세 철학은 기독교·이단 사상·스콜라 철학을, 근세 철학은 합리론·경험론·칸트·독일 관념론·영국 공리주의를, 현대 철학은 유물론·쇼펜하우어·프로이트·니체·실존주의·야스퍼스·하이데거·사르트르·현상학·해석학·비판이론·영미철학·실용주의·분석철학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청소년을 위한 '논술 철학'으로 철학적 가치관과 논리적 사고관을 좀더 폭넓게 정립할 수 있으며, 시대와 인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도판과 캡션을 더욱 풍부하게 배치하고, 책 뒤에는 철학사 및 세계사 연표를 두어 세계사는 물론 철학사 연대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학생, 일반 독자들도 교양인으로서 갖춰야 할 철학의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동·서양 철학에 대한 전체 조망을 얻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을 위한 동양철학사'는 2009년에 출간돼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에 선정되고, 2015년에는 베트남 언어로 번역 출판됐으며,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학생용 철학의 대표 해설서로 전문 등재돼 있다. '청소년을 위한 서양철학사' 또한 2009년에 출간돼 '2009년 아침독서운동 추천도서'에 선정되고,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학생용 철학의 대표 해설서로 전문 등재돼 있다.

저자인 강성률 명예교수는 '2500년간의 고독과 자유', '철학스캔들', '거꾸로 읽는 철학이야기' 등 다수를 펴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광주시립미술관, '디자인 스페이스 유니버스' 전시연계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윤익)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디자인 스페이스 유니버스'전과 연계해 도슨트 양성교육을 수료한 어린이 도슨트들이 직접 전시 해설에 참여하는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어린이 도슨트 활동은 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방학 기간 동안 진행되며,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나눠 어린이 도슨트(1기 양성교육 수료생)들이 갤러리를 찾은 또래 관람객 및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직접 작품 해설을 제공하거나 체험프로그램을 보조한다.

'디자인 스페이스 유니버스'전은 전시공간을 탐험하며 작품 주제와 소통하는 놀이활동형 전시로, '점, 선, 면'이라는 디자인의 기본 조형 요소를 통해 어린이의 창의적 사고와 조형 감각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관람 중심의 전시를 넘어, 어린이가 전시의 일방적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가 되는 경험을 제공할 복안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작품이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 아닌, 공간 자체가 작업이자 작품이 되는 '공간 + 행위 + 과정 = 작품' 유형의 참여형 전시를 진행해 오고 있다.

윤익 관장은 "어린이 도슨트 활동은 어린이들이 전시를 직접 이해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미술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전시와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실천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디자인 스페이스 유니버스'전은 2026년 3월 1일까지 계속되며, 기간 중 어린이갤러리 로비에는 '점 점 점 디자인 놀이'라는 체험 섹션을 마련, 전시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